



지난 5월 광주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 제주 4·3과 여순 10·19, 광주 5·18 기념공연.

제주·여순·광주 아픈 역사 보듬다

‘10월, 그대와 함께 꿈꾸는 희망’
내달 11일 여수 예술마루 대극장
뮤지컬 등 세 지역 콘텐츠 융합

제주 4·3, 여순 10·19, 광주 5·18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지말아야 할 역사다. 이를 추모하고 기념하는 음악회가 열린다.
오는 10월 11일 오후 7시 30분 여수 GS칼텍스 예술마루 대극장 열리는 ‘10월, 그대와 함께 꿈꾸는 희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문화재단, 제주4·3평화재단, 여수심포니오케스트라 주관으로 마련된 공연은 제주 4·3과 여순 10·19사건의 아픔을 보듬고 광주 5·18민주화운동을 통해 평화와 인권, 민주·통합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5월 28일 제주 탐동해변공연장, 5월 30

일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 무대에 이어 여수에서 열리는 세 번째 공연이다.
세 지역의 콘텐츠가 융합된 이번 음악회에서는 ‘님을 위한 행진곡’을 모티브로 한 뮤지컬 ‘광주’의 ‘그날이 올 때까지’, ‘아무 일 없던 것처럼’과 현기영 작가의 소설 ‘순이삼촌’을 기반으로 제작된 제주 4·3 창작오페라 ‘순이 삼촌’의 ‘예나 제나 죽은 마을’, ‘여진아’, 여순 10·19 창작오페라 ‘1948년 침묵’의 ‘사의 사연’, ‘만성리아, 동백섬아 기억하거라’를 선보인다.
이와 함께 ‘님을 위한 행진곡’을 피아노 협주곡으로 편곡한 ‘5월 광주’ (박영란 작곡)가 프로그래밍의 한 축을 담당하고, 시칠리아섬의 저녁 기도 중 서곡 ‘신포니아’ (베르디 작곡)와 ‘1812년 서곡(차이코프스키 작곡)’, ‘히브리노예들의 합창(베르디 작곡)’, 그리고 전체 출연자와 관객이 함께 부르는 ‘님을 위한 행진곡’ (김종률 작곡)으로 마무리된다.
공연에는 예술감독 김선철, 지휘 이경호(여수심포니오케스트라), 여수시립합창단, 피아

니스트 피아온, 소프라노 김지현, 소프라노 윤하나, 테너 지명훈, 테너 이형석, 뮤지컬 배우 김수, 효은 등이 출연한다.
한편 문화공연 서비스 만족도 향상과 개선의견 수렴을 위한 만족도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설문 참여는 예술마루 로비의 포스터 또는 X배너의 QR코드를 촬영 후 내용에 응답해 제출하면 된다.
황풍년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민주·인권·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마음을 나누는 기념 음악회를 지난 5월 제주, 광주에 이어 10월 여수에서 개최하게 됐다”며 “이번 음악회를 통해 제주, 여수·순천, 광주가 가진 아픔의 역사를 치유하고 보듬으며 함께 손을 맞잡고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여수와 순천 배부처에서 좌석교환권을 받아 공연 당일 매표소에서 좌석배정 후 입장하거나, 당일 잔여 좌석에 한해 현장발권할 수 있다. 만 7세 이상 입장 가능. 공연 문의는 광주문화재단 062-670-7498. /이나라 기자

광주여성가족재단, 아빠 힐링캠프 개최

내달 28일 광주시청 시민홀

광주여성가족재단과 광주시가 오는 10월 28일 광주시청 시민홀에서 아빠 힐링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육아를 하고 있는 아빠를 포함한 40가족이 참여해 송원대 김동례 교수와 함께 일

상의 육아 고민과 아빠 육아 참여에 대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한다.
전문 놀이 강사의 아빠표 놀이 강습을 통해 아빠가 ‘함께 키우고 함께 행복한 광주’ 실현을 위해 기획됐다.
또한 아이들이 참여하는 ‘가족사각 어린이그림대회’와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포토존 즉석

사진촬영, 업사이클링 체험으로 자전거 자가발전 슬러시 만들기, 재활용품을 활용한 다육이 심기, 재활용 팝업북 등 가족 체험 시간도 준비돼 있다.
광주여자대학교는 유아교육과 운동동아리 ‘울’의 식전공연 후원을 통해 아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하무대를 선보인다.
본 행사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아이키움 플랫폼(www.광주아이키움.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나라 기자

광주시향, 올해 마지막 실내악 시리즈

내달 13일 금호아트홀
멘델스존·슈만 작품 선배

깊어가는 가을 저녁, 더욱 특별한 낭만의 밤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열린다.
오는 10월 13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리는 광주시립교향악단 ‘GSO 실내악 시리즈V’이다.
올해의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실내악 시리즈로 멘델스존과 슈만의 실내악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이번 공연에는 광주시향 제1바이올린 석수연·박혜진, 비올라 조수영, 첼로 석민정이 열정적이고 강렬하며 능숙한 솜씨를 무대에 풀어낼 예정이다.
이날 연주회의 첫 곡은 멘델스존의 ‘현악 사중주 2번 A단조’다. 이곡은 ‘제2번’으로 출판됐지만 ‘제1번’보다 먼저 작곡돼 사실상 멘델스존이 쓴 첫 번째 현악사중주 작품이다. 멘델스존의 서정가곡 ‘Frage 물음’의 악상을 인용한 작품으로 멘델스존의 작품 가운데 가장 열정적인 작품 중 하나다.
이어 연주되는 곡은 슈만의 ‘피아노 오중주 E-flat장조’다. 이 곡은 이른바 ‘슈만의 실내악의 해’로 불리는 1842년에 작곡됐으며 피아노와 현악사중주가 함께하는 ‘피아노 오중주’ 형식으로 연주되는 최초의 작품이다. 피아노가 가세한 실내악 장르 중 가장 높은 곳에서 빛을 발한 이 형식은 훗날 브람스를 비롯한 드보르자크, 포레, 엘가, 레거, 쇼스타코비치 등이 더욱 발전시켜 나갔다.
‘피아노 오중주 E-flat장조’는 슈만의 실내악 작품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곡이라 할 수 있



석수연



박혜진



조수영



석민정



김성재

다. 내용과 형식이 가장 이상적으로 화해를 이루고 있는 고전적인 작품이다. 피아니스트 김성재가 참여해 광주시향 현악사중주의 섬세한 앙상블을 펼칠 예정이다.
공연은 광주예술의전당 홈페이지와 티켓링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입장권은 전석 1만원이며 7세(초등학교 1학년 이상)부터 입장할 수 있다. /이나라 기자

‘ACC 직군탐색’ 과정 내달 5일부터 운영

6개 직종 교육…선착순 20명

급변하는 시대 문화예술콘텐츠 분야의 새로운 직업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오는 10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문화정보원 문화교육실2에서 직업별 전문가와 함께 새로운 직업군의 현황과 전망을 알아보는 ‘ACC 직군탐색’ 과정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ACC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추진한 새로운 직업군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특히 문화예술분야의 6개 직종에 대한 교육을 마련, 직업별 현장과

실무에 대한 현직 전문가의 설명과 함께 미래 전망을 살펴볼 수 있다.
다음달 5일 열리는 첫 교육은 ‘디지털 헤리티지 전문가’를 주제로 시작한다. 이어 격주 목요일마다 ▲지역 문화 전문 인력(10월 19일) ▲공공 디자이너(11월 2일) ▲NFT 아트 에이전트(11월 16일) ▲아이디어 컨설턴트(11월 30일) ▲문화유산 교육사(12월 7일) 등 분야별 현장전문가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수강 신청은 26일부터 ACC 누리집(www.acc.go.kr)에서 하면 된다. 각 강좌마다 20명 이내로 선착순 모집하며 수강료는 무료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나라 기자



www.jndn.com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시 볼수 있습니다

알뜰한 정보!
행복한신문!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게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론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사·군지사

광산지사	010-3601-1102	장흥지사	010-3613-6114
목포(갑)	010-3272-2765	강진지사	010-6646-1241
목포(을)	010-3635-6777	해남지사	010-8181-2627
여수지사	010-8648-1236	영암지사	010-4624-8409
순천지사	010-2547-7890	무안지사	010-3621-8989
나주(갑)	010-7706-2410	함평지사	010-3600-0500
나주(을)	010-3713-7458	영광지사	010-8666-2882
담양지사	010-8004-9885	장성지사	010-3666-1300
곡성지사	010-9331-8200	완도지사	010-5619-7020
구례지사	010-6636-3039	진도지사	010-3624-4777
고흥지사	010-9151-2828	신안지사	010-4627-1472
화순지사	010-3100-0386	보성지사	010-5259-6441

M 전남매일

본사 주소 : (우)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98 (사동)
기사 제보 : T. 062-720-1050 / F. 720-1080 / jndn@chol.com
광고문의 : T. 062-720-1017 / F. 720-1020 / jnm1000@hanmail.net